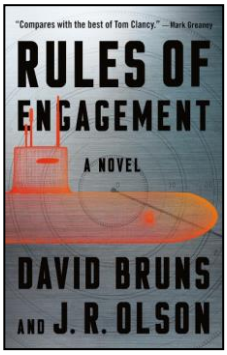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RULES OF ENGAGEMENT
가제 : 라피크의 바이러스
저자 : David Bruns, J.R. Olson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9년 6월 25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전쟁 스릴러

* **"현대판 전투를 너무나 독창적으로 그린 소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Mission Critical』의 작가 마크 그리니**
* **"사이버 전쟁 소설 팬이라면 숨막히는 속도와 광범위한 인물들, 적시성을 즐기게 될 것이다" – 「커커스 리뷰」**

세계 무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강대국들의 야욕은 표현 방식만 달라졌을 뿐 수십 년 전 1차, 2차 대전이라는 최악의 비극으로 치달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 교묘한 신경전을 지극히 개인적인 증오심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미치광이 천재 해커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미 해군 출신인 두 저자는 미국과 중국, 일본 간의 기 싸움을 태어나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를 잃은 고통을 되갚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이코패스 해커와 그가 개발한 치명적인 컴퓨터 바이러스를 찾아내려는 미군의 치열한 싸움을 한 편의 소설로 담아냈다. 서방에 철저히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라피크 로셰드가 제 2의 고향으로 삼은 곳이 북한으로 그려져 더욱 흥미를 더하는 이 소설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클릭 한 번으로 얼마나 간단하게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라피크의 사이버 공격이 특별한 이유는 치밀함이었다. 여느 해커들처럼 '되는대로 한 놈만 걸려라' 식의 공격이 아닌,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줄 아는 지능적인 해킹이 그가 직접 개발한 독창적인 악성 소프트웨어와 결합되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무려 12시간 동안 정전을 일으켜 3,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꼼짝없이 전기 없이 생활하게 만든 사건도 라피크의 소행이었다. 이 지역 전체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업체, 그곳에서도 최근 가족과 친근한 이메일을 수시로 주고받는 직원을 골라 병든 아버지를 간호하는 어머니가 보낸 메일처럼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이메일 한 통을 보내는 것

으로 라피크의 바이러스는 철저한 사이버 보안을 자랑하는 이 업체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단번에 침투했다. 하지만 북한의 외딴 섬에서 김정은을 위해 일하는 사이버 요원이 된 라피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 나딘을 죽음으로 내몰고 두 아이를 빼앗기게 만든 미국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가 북한을 자신의 새로운 은신처로 택한 것도 김정은의 목표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피크는 무기 판매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러시아 범죄 단체와 연계된 초대형 무기 업체와 거래를 맺고 강대국 간의 무력 갈등을 일으키기로 김정은과 합의한 순간, 그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한다. 김정은은 그 일을 해낼 요원으로 누구보다 뛰어난 사이버 해킹 실력을 갖춘 라피크를 택했고, 라피크는 기대에 부응하여 비상한 두뇌로 만들어낸 바이러스를 뿌리기 시작한다. 먼저 첫 번째 타깃으로 노린 중국의 무기 제어 시스템에 빠르게 침투한 라피크는 태평양에 주둔 중인 미국을 무작위로 공격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데 성공한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무력 공격에 당황한 미군은 서둘러 조사에 나서고, 미 사이버 총사령관 돈 라일리는 중국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무기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었다. 철통 보안을 자랑했던 국가 안보 시스템을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침투한 해커가 일본군의 무기 시스템까지 손에 넣은 데 이어 미국 네트워크에도 성큼 다가온 것이다. 세 나라 간에 무차별 무력 공격에 민간인이 얼마나 희생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이 정신 나간 해커의 공격은 누가 봐도 3차 세계대전을 바라는 것이 분명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까지 침투할지 예상할 수도 없는 가운데 라일리 사령관은 마지막 희망을 신입 장교들에게 맡겨 보기로 한다. 김정은의 지시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해커의 손발을 촉망받는 이 신입 장교 3명을 통해 절단하고 세 번째 세계 전쟁까지 막는다는 계획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르헨티나에서 아내, 아이들과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라피크는 고향인 이란에서 테러 활동을 벌이던 형의 지원 요청에 응한 것이 가족 모두를 잃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이 겪은 모든 비극은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는 확신은 무자비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막중한 책임을 맡은 미국의 천재적인 사이버 요원 셋은 이 침울한 테러리스트의 기술은 물론 숨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북한에서 '정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라피크를 중심으로 현실감이 느껴져 더욱 불안한 3차 대전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동시에 우리가 '스마트'하다고 부르는 디지털화된 사회기반시설과 국가 안보시스템의 치명적인 약점을 낱낱이 보여주는 소설이다. 군 출신 작가들의 생생한 묘사도 돋보인다.

<저자 소개>

데이빗 브런스(David Bruns)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 해군 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다 퇴역했다. J.R. 올슨 과 함께 『Weapons of Mass Deception』 시리즈를 썼다.

J.R. 올슨(J.R. Olson)은 미 해군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령관으로, 퇴역 후 대학에서 테러 방지와 첩보 활동에 관한 강의를 맡고 있다.

제목 : DAMNATION SPRING
가제 : 저주 받은 유산
저자 : Ash Davidson
출판사: Scribner
분량 : 약 483 페이지
장르 : 문학

*** 경매를 거쳐 수십만 달러 규모로 출판 계약 체결된 데뷔 소설**

쨍하게 내리쬐는 햇살도 겨우 뚫고 들어올 정도로 거대한 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는 숲을 떠올려 보자. 상상만으로도 기분 좋은 자연의 냄새와 공기가 한껏 느껴진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자란 나무들 사이에서 상쾌한 공기를 크게 들이킬 때, 그 공기 속에 한 번 몸에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1977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그런 숲 근처에서 살아온 건더센 가족 역시 마찬가지였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의 경계에 자리한 클래머스 지역은 붉은색 몸통이 돋보이는 미국 삼나무가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과 함께 자라며 편안한 휴식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왔다. 다른 자원이 딱히 없는 이 중서부 외곽의 해안가 사람들에게 벌목은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꽤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리치 건더센도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부터 아버지 손을 잡고 거의 매일 삼나무 숲 한가운데 서 있곤 했다. 아버지가 하루 일과 중에서도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던 산책은 정해진 경로가 있었다. 클래머스 삼나무 밀림 지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자라는 곳, '24-7' 구역이라 불리는 곳은 건더센 집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다. 언젠가는 꼭 그 땅의 주인이 되어 대대로 더 이상 가난과 빚에 쪼들리지 않고 살 수 있기를 기원해온 곳, 그 간절한 기도가 벌써 수 대 째 이어지며 염원과 갈망이 굵은 나무들 사이사이에 짙게 깔린 그런 곳이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벌목 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끝이 보이지 않던 숲도 크게 줄어든 지금, 아직 남아 있는 24-7 구역의 귀중한 삼나무들을 소유할 기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세상을 떠난 리치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이자 리치를 갓난아기 때부터 봐온 땅 주인은 평생을 벌목에 피땀 흘리는 '진짜' 나무꾼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성가신 관광객들이나 환경 보전이랍시고 벌목 작업을 자꾸 귀찮게 하는 지역 당국의 간섭에 넌더리가 난 나머지, 리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70만 제곱미터 면적의 24-7 구역 땅은 시가로 40만 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벌목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최소 3-4배의 수익이 나올 것이 확실한 만큼 리치가 나선다면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계약금 정도만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전 재산은 탈탈 털어도 2만 5천달러가 전부라 아버지처럼,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24-7 구역을 손에 넣는 건 머나먼 꿈으로 끝날 일이었기에 땅 주인의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건더센 집안의 오랜 염원을 마침내 풀고, 이제 겨우 유치원에 들어가는 어린 외동아들 첩과 아내가 남은 생애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줄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다. 2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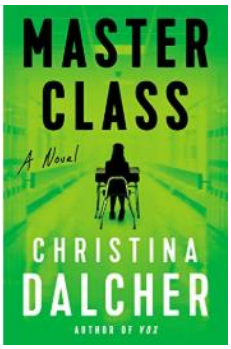
5천달러는 지금 살고 있는 낡고 좁은 집이 식구가 더 늘어나면 불편해질 것을 대비해서 집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열심히 모아둔 돈이었다. 아내 콜린은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많아 식구를 불리고 싶어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콜린이 다섯 번이나 유산을 겪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계속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리치는 잘 알고 있었지만 냉정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어차피 이루어지지 못할 희망이라면, 언제가 될지 모를 새로운 식구를 위해 돈을 묵히는 것보다 아내와 아들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한 리치는 콜린 몰래 전 재산을 털어 24-7 구역을 사들인다.

대니얼 바이워터라는 해양 생물학자가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분수령을 찾아 클래머스까지 찾아오지 않았다면 리치의 야심찬 계획은 행복한 현실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벌목 작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대형 트럭이 오갈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해 도로 공사 일정까지 다 나왔을 때 찾아온 대니얼은 24-7 인근은 물론 삼나무 밀집 지대 곳곳에서 물 표본을 채취했다. 그런데 성분에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늘 해온 이 검사에서, 뜻밖의 결과가 확인된다.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악명 높은 명칭으로도 알려진 고엽제 성분이 고농도로 검출된 것이다. 대니얼은 1950년대부터 이미 20년째 클래머스 지역 삼나무에 이 치명적인 농약이 다량 살포됐고 비를 타고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강물로 쓸려 들어가 지역 전체 동식물은 물론 인체에 축적됐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미국의 다른 삼림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실이 밝혀져 대규모 청원 운동이 벌어지는 만큼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대니얼은 외부인을 경계하는 주민들을 하나하나 만나 자신이 밝힌 결과를 설명한다. 리치의 아내, 콜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조산사로 일해온 콜린은 클래머스에 사는 여성들이 유독 유산과 조산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당사자였다. 콜린 자신도, 리치는 다섯 번으로 알고 있지만 무려 9번이나 뱃속의 귀중한 생명이 어찌할 도리 없이 죽어버리거나 죽은 채로 태어나는 고통을 겪었다. 첫째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만큼 이웃들 중에는 아이를 낳더라도 기형이거나 큰 병이 있는 가족들이 수두룩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매일 마시고, 씻고, 음식에 넣는 물 때문이라니?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대니얼의 경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상하다 싶었던 리치는 그제야 아내에게 몇 개월 전 24-7 구역을 무리해서 사들였다는 사실을 털어 놓는다. 농약이건 뭐건, 리치는 모든 것을 건 투자에만 온 정신을 쏟았다. 콜린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들,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간 아이들보다 벌목에 차질이 생길까 봐 노심초사하는 리치의 태도는 가장 소중하게 지키려 했던 가족과 서서히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거세지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은밀한 뒷거래는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 고요했던 한 마을을 집어삼킨 충격적인 사실로 터진 갈등과 대립을 깊이 있게 포착한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애쉬 데이비슨(Ash Davidson)은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을 졸업했다. 위 소설이 데뷔작이다.



제목 : MASTER CLASS
가제 : 당신의 Q 점수는 몇 점입니까
저자 : Christina Dalcher
출판사: Berkley Books
발행일: 2020년 4월 21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SF 스릴러

*** 브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루마니아, 스페인 판매 완료**

*** "단단하고 빛을 발하는 언어, 생동감이 가득한 이야기로 작가는 우리를 경계하게 하면서도 마음을 사로잡는다. 조지 오웰과 올더스 헉슬리가 정보 시대의 감각을 가진 듯한 느낌을 주는 작가다" – 『The Pisces』의 작가 멜리사 브로더, 전작『Vox』에 대한 서평**

같은 나라, 같은 땅에서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살아가지만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계급은 사실상 다를 것도 없는 똑같은 인간들을 철저하게 구분 짓는 벽이 되어 넘을 수 없는 선을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Vox』로 날카로운 사회 비판적 시각을 인정받은 작가는 이번 작품에서 재산과 학벌로 대표되는 이 기준선이 은근한 차별의 벽이 아닌 노골적으로 표출된 끔찍한 사회를 보여준다. 선천적인 지능지수와 후천적으로 거둔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마다 매겨지는 'Q 점수'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통제한다. MASTER CLASS는 태어날 때부터 등급이 매겨지고 정부가 그 점수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하는 세상에서 소중한 딸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한 엄마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다.
Q시스템은 마치 단 1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것처럼 모두의 일상 속에 빠르게 녹아 들었다. 엘레나는 그런 Q 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의 기억이 그나마 어느정도 남아 있는 사람 중 하나였다. 아침에 스쿨버스 좀 놓쳤다고 해서 '점수'가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던 시절, 슈퍼마켓에서 Q 점수가 9점 이상인 실버 등급 전용 계산대와 점수에 그에 못 미치는 일반 등급 계산대가 나뉘지 않았던 시절이 분명 존재했었다. 새로 바뀐 교육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Q 시스템은 한정된 자원을 우수한 아이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어차피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두지 못할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만 받도록 한다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전제로 시작됐다. 하지만 완전히 자리를 잡은 지금, Q 점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양분하는 철옹성 같은 기준이 되었다. 9점대 이상 '엘리트' 계급이 가진 번쩍이는 실버 카드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되어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반면 점수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한정된 기회 내에서, 그마저도 수시로 박탈당하며 살아야 했다. 등급은 매달 치르는 시험 성적과 일상 속에서 포착된 각종 위반 사항들을 종합해서 도출되는 '점수'로 정해졌다. 엘레나도, 이 괴상한 제도를 만들어낸 주요 인물인 엘레나의 남편 말

콤도, 그리고 아빠를 쏙 빼 닮은 장녀 앤도 사실 이 점수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세 사람 다 9점대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버 등급 전용 학교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는 엘레나는 시험 한 번 치를 때마다 아이들이 강제로 더 낮은 등급의 학교로 보내지는 상황이 영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아이, 둘째 프레디가 이 삼엄한 시스템 속에서 서서히 시들고 몸부림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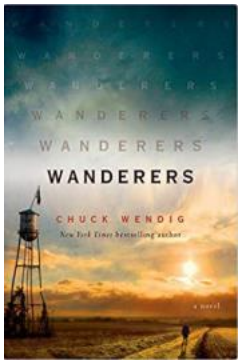
프레디는 한 달에 한 번씩 여섯 과목 이상 시험을 치르고 평균 9점이상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다. 같이 놀던 친구들이 왜 아침에 갑자기 다른 색깔의 버스를 타고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지도 납득하지 못했다. 학교에 가기 싫은 마음이 커질수록 아침마다 프레디를 제 시간에 버스에 태우려는 엘레나와 프레디의 전쟁은 끊이질 않았고, 위태롭던 프레디의 학교생활은 결국 시험을 완전히, 제대로 망치면서 내리막길로 접어든다. 아빠가 교육부 차관이고 엄마가 학교 교사여도 아이가 '수준 미달' 판정을 받고 강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었다. 심지어 말콤은 아홉 살밖에 안된 딸이 비행기로 네 시간이나 가야 하난 캔자스 주 외곽에 있는 허름한 '일반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됐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엘레나를 기겁하게 만들었다. 점수를 못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콤의 싸늘한 반응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겁도 많고 걱정도 많아 집 밖에서 하루도 자본 적 없는 프레디를 그 먼 곳에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한 엘레나는 그제야 한 사람의 엄마로서만이 아닌, 양심 있는 교육자의 눈으로 Q 시스템의 잔인한 폐해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 사람을 인격이 아닌 그가 소지한 점수 혹은 등급 카드로 재단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대체 무슨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프레디를 되찾고 가족 품에서 강제로 분리된 수많은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리라 마음먹은 엘레나는 말콤이 중심에 선 Q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정의를 되찾으려는 노력은 감당하기 힘든 진실로 또 다시 엘레나를 큰 충격에 빠뜨린다.

공식적인 시험 점수와 함께 후천적 평가 점수가 합산되어 Q 점수가 정해지는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가령 특정 인종이나 이민자, 성 소수자 등은 아무리 시험을 잘 쳐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조작해온 일이 교육부에서 은밀이 이루어졌고, 그 모든 사적 기준이 다름아닌 말콤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낸 엘레나는 그가 독일 이민자 출신인 엘레나의 가족들까지 전부 '하등한' 존재들로 여겨왔음을 확인한다. 언론과 접촉해 이 부당한 시스템 전체를 만천하에 고발하기로 한 엘레나는 무수한 협박과 괴한의 공격에 시달리지만 굴하지 않는다.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고 뱃속 태아의 지능을 검사하고 몰래 낙태하는 일까지 횡행하는 비극적인 사회의 모습이 영 낯설지만은 않아 더 기억에 남을 소설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티나 달처(Christina Dalcher)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이론 언어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전 세계 수백 편의 저널에 단편과 플래시 픽션이 실렸다. 배스 플래시 어워드를 수상하고 푸시카트 상 후보에 올랐다. 장편 『Vox』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올랐다.

제목 : WANDERERS
가제 : 길 위의 방랑자들
저자 : Chuck Wendig
출판사: Del Rey Books
발행일: 2019년 7월 2일
분량 : 800 페이지
장르 : SF 스릴러



*** "대서사이면서도 친근하고, 추정적이지만 현실의 언저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인물들 곁에서 모든 경험을 함께 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는 작가의 솜씨가 느껴지는 이야기"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Night Circus』의 작가 에린 모겐스턴**

*** "작가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대서사. 스티븐 킹의 'The Stand'에 비견해도 손색이 없는 소설" - 「퍼블리셔스 위클리」**

동이 튼지 얼마 되지 않은 새벽, 주방에서 여동생 것까지 점심 도시락을 두 개 싸느라 분주했던 샤나는 코를 골며 곯아떨어져 있어야 할 동생 네시가 방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밤 늦게까지 아빠의 낡은 망원경을 창 밖에 내놓고 열심히 뭔가를 관찰했으니 당연히 정신없이 자고 있어야 하는데, 이상한 일이었다. 2년전, 네시는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사라져버린 사실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한 적이 있었다. 이제 열다섯이 되고 제법 철이 들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또? 불안한 마음에 집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던 샤나는 창문 밖에 낯익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한다. 처음에는 아빠가 기르는 젖소가 줄이 풀려 축사에서 나왔나, 했는데 덩치가 훨씬 작았다. 아직 어둑한 밖에서 집과 이어진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네시였다. 샤나는 큰 소리로 네시를 불렀지만 소용없었다.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네시는 계속 걸어갔다.
얼른 달려나가 네시를 붙들고 난 후에야 샤나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동생의 두 눈은 분명히 뜨고 있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초점도 없이 정면 어딘가를 바라볼 뿐이었다. 장난인가 싶어서 툭툭 치며 말을 걸었지만 네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느낀 샤나가 온 몸으로 버티고 서서 더 못 가게 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샤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오르고 두 눈이 곧 튀어나올 것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핏발이 확 올라왔다. 동시에 온 몸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워져 이러다 둘 중 누구 하나가 잘못될 것 같아 샤나는 재빨리 비켜선다. 잠시 부들부들 떨던 네시는 아직 열기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걸었다. 마침 두 딸을 찾기 위해 집 앞으로 나온 아빠도 합세하여 둘째 딸을 막아서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강한 힘으로 막을수록 네시는 말 그대로 '폭발'하기 일보직전 상태로 끓어올라 놔줄 수밖에 없었다. 당황한 모녀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멍한 상태로 네시의 뒤를 쫓아갈 때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샤나가 다니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다. 도움을 요청하려고 달려간 샤나는 선생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다. 두 눈이 네시처럼 텅 비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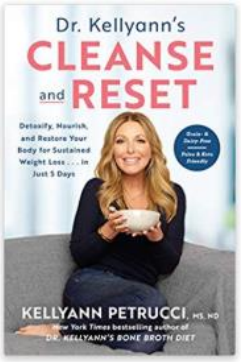
같은 날, 꽤 장기간 머물렀던 하와이에서 돌아온 벤지 레이는 자신을 찾아온 낯선 여성을 만난다. 그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역학 전문가로 일하던 시절, 정부 주도로 인간의 머리로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전염병이나 대규모 질환 등을 예측하기 위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시작됐고 '블랙 스완'이라는 오묘한 이름의 예측 인공지능이 개발됐다. 벤지를 찾아온 매력적인 흑인 여성은 바로 그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업체 사람이었다. 치명적인 실수로 경질되고 조용히 개인적인 연구 활동에만 전념해온 자신을 왜 굳이 찾아왔는지 묻는 벤지에게 그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밝혀진 적 없는 괴상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블랙 스완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벤지를 지목했다고 이야기한다.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어도 역학이라는 분야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굳게 믿는 그는 예전부터 달갑지 않았던 블랙 스완이 왜 하필 자신을 지목했는지, 그 영리한 프로그램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뭔지 호기심을 느낀다.

소설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아무 것도 모르는 채로 몽유병 환자처럼 하염없이 걷기만 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하나 둘 출몰하고, 그 뒤를 따라 이들을 보호하려는 가족, 친구들이 또 다른 무리를 형성하는 웃지 못할 상황을 들려준다.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은 채 풀린 두 눈을 멀겋게 뜬 채로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걷기만 하는 이들은 놀랍게도 길에서 상태가 같은 사람과 마주치면 나란히 서서 함께 걸어갔다. 블랙 스완의 지목으로 점점 확산되는 이 기현상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일에 뛰어든 벤지는 블랙 스완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의 한계를 뛰어 넘어 놀랍도록 뛰어난 기능으로 진화하며 점점 섬뜩한 면모를 드러내는 이 예측 프로그램은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사태에 과연 독이 될까, 득이 될까? 소설은 네시가 첫 환자가 된 것이 증상이 발현되기 전, '사카모토 혜성'을 관찰한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문제의 유성이 네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지구 가까이 다가온 그날로부터 6개월 전, 이 혜성을 최초로 발견한 유미코 사카모토라는 일본인 여성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죽음도 결코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병이 확산될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도 증폭되고, 일각에서 누구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이거나 악마를 추종하는 숭배자들이라는 악성 소문이 퍼진다. 그러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을 막아야 한다는 우익 정치인들의 선동이 불안에 떠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져든다. 작가는 샤나와 네시, 벤지를 중심으로 이 미스터리한 병과 직접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아들을 잃고 광신도가 된 라디오 진행자와 방탕했던 삶을 후회하며 구원을 찾아 헤매는 록 스타 등 흥미로운 인물들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무서워해야 할 대상은 눈 앞에 벌어진 사건 자체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빚어낸 부풀려진 공포 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인간성의 본질, 사회의 붕괴를 독특한 소재로 조명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척 웬디그(Chuck Wendig)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tar Wars: Aftermath』와 『Miriam Black』, 『Atlanta Burns』 등을 쓴 소설가다. 존 W. 캠벨 상 최우수 신인작가상(John W. Campbell Award) 결승에 올랐다. 에미상 후보에 오른 디지털 컨텐츠 'Collapsus'의 공동 작가를 맡기도 했다.

NON-FICTION



제목: DR. KELLYANN'S CLEANSE & RESET
가제: 켈리안 박사의 해독 리셋 다이어트
저자: Kellyann Petrucci
출판사: Rodale Books
발행일: 2019년 12월 3일
분량: 288 페이지
장르: 건강

*** 다이어트에 큰 돌풍을 일으킨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Bone Broth Diet』의 저자가 새롭게 소개하는 건강 회복 비법 – 몸을 해독하고 회복시키는 5일 계획**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사골 국물을 다이어트에 활용하는 법을 미국 사회에 처음 소개하며 큰 호응과 주목을 받았던 저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들고 다시 찾아왔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건강 전문가로 각광을 받으면서 눈 코 뜰새 없이 바쁘게 살던 중 정작 자신의 건강이 크게 나빠지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개발했다는 이 5일 계획은 몸속 독소를 몰아내고 부족한 영양소는 채워서 병들고 지친 몸, 우울하고 축 쳐진 기분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방법이다. 영양은 부족한데 해로운 독성 물질은 잔뜩 쌓여서 자동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인체를 '리셋'하고 모든 세포를 깨워 단시간에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소개된다.

저자가 개발한 해독 다이어트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을 처리하느라 지친 소화기관과 몸 전체 기능을 쉬게 해주는 것으로, 특히 장 누수로 알려진 문제가 자연히 회복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두 번째는 회복이다. 우리 몸은 자연 치유라는 놀랍고 신기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재료'가 있어야 한다. 즉 필수영양소가 공급되어야 여기저기 고장 난 부분이 알아서 회복될 수 있다. 저자는 세포 내부가 아닌 세포 외부로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로잡아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잔병에 시달리는 현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세 번째 목표는 에너지 강화이다. 거의 매일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한 것은 각각의 세포가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약화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세포의 에너지를 깨울 음식을 많이 먹고 몸처럼 세포도 축 처지게 만드는 음식은 식단에서 제거하여 다시 잃어버린 힘을 되찾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5일간의 해독 다이어트는 다섯 가지 원리로 건강을 회복시킨다. 콜라겐을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분해되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촉진하는 것, 저자의 대표적인 다이어트 비법인 사골 육수를 식단에 포함시켜 콜라겐 공급을 강화하는 것, 신선한 생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 몸에 좋은 지방을 충분히 먹는 것, 그리고 탄수화물의

비율을 대폭 줄인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다. 저자는 2017년에 체중이 9 킬로그램 가까이 늘고 호르몬 균형도 완전히 깨져 건강이 크게 악화됐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개발한 이 해독 프로그램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가공식품과 수면 부족에 찌는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고 망가진 건강을 자신처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큰 틀은 정해져 있지만 개개인의 몸 상태와 목표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더불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유익한 식생활과 생활습관이 자리를 잡으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관리 방법도 제시된다. 책 3부에는 60여 편에 달하는 레시피가 포함되어 있다. 큰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해독 방안을 배울 수 있는 건강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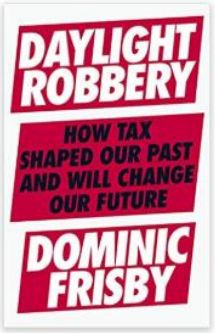
<목차>

1부. 내가 경험한 해독, 리셋 다이어트의 결과, 그리고 여러분이 겪게 될 일들
  1장. 해독 다이어트를 만든 이유 - 나 때문에
  2장. 나의 해독 다이어트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실
2부. 해독 다이어트 방법
  3장. 나만의 해독 다이어트 준비하기
  4장. 나만의 해독 다이어트 실행하기
  5장. 해독 다이어트 이후: 켈리안 박사의 생활방식 계획
  6장. 몸을 깨끗하게, 섹시하게, 평생 건강하게 지키는 추가적인 방법들
3부. 해독 다이어트와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레시피
  7장. 멋진 그린 스무디
  8장. 진하고 부드러운 쉐이크
  9장. 사골 국물이 듬뿍 들어간 수프
  10장. 해독 작용을 강화해줄 물
  11장. 켈리안 박사의 생활습관 계획에 포함된 레시피
맺음말

<저자 소개>

켈리안 페트루치(Kellyann Petrucci)는 공인 자연요법사, 영양컨설턴트로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인 『Dr. Kellyann's Bone Broth Diet』, 『The 10-Day Belly Slimdown』를 썼다. 뉴욕과 LA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의사로도 활동 중이며 TV 프로그램에도 다수 출연했다.

제목 : DAYLIGHT ROBBERY
가제 : 세금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꿨나
저자 : Dominic Frisby
출판사: Penguin Business
발행일: 2019년 10월 17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경제



***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부터 미국 남북전쟁, 오늘날 정치적 논쟁까지 세금을 둘러싼 갈등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왔는지 놀랄 만큼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 - 『The Evolution of Everything』의 저자 맷 리들리**

*** "세금이라는 매력적인 주제를 능숙하게 파헤쳐 생명을 불어 넣었다" -「Monetary Economist」**

세금에 대해 굳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기 싫다, 피하고 싶다, 적게 내고 싶다는 마음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정도일뿐 복잡한 숫자 계산이 싫기도 하고, 월급 명세서에 찍힌 꽤 굵직한 금액이나 한 번씩 폭탄처럼 부과되는 각종 명목의 세금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올라오기에 그냥 잊고 싶어 한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재벌들이 요리조리 세금을 피하다 적발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는 걸 보면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런 심정이 사그라지는 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대다수가 그냥 내야 하니까 내는 돈 정도로만 생각하는 세금은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어떤 정부도 세금 수익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지방 어느 구석의 소도시부터 인구수 최대인 수도까지 세금이 없으면 나라 일은 아무 것도 돌아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세금은 우리의 생활 방식과 행동, 사고방식에도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빈부 격차, 세대 갈등 같은 오늘날 수많은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도 그 뿌리를 추적하면 과세 시스템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처럼 세금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힘의 원천이 된 것은 현대 문명의 역사와 맞먹을 만큼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일임을 강조하며 고대 메소포타미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세가 만들어낸 전 세계의 변화를 광범위하게 설명한다. 세계 곳곳에서 탄생한 종교와 세금은 어떤 관계일까? 특정 사회는 물론 인류 전체를 변화시킨 혁명에도 세금이 영향을 주었을까? 주요 전쟁 이후 과세 방식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이처럼 흥미로운 주제를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재미 있게 소개한다.

국가 재정이 바닥을 보이고 고민 끝에 건물마다 설치된 창문에 일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대신 창문을 포기한다. 1746년에 영국 조지 2세가 '창문세'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돈을 내는 대신 빛을 포기하고 컴컴하게 사는 쪽을 택한 수많은 사람들의 결정은 여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시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뜻밖의 결과로도 이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구가

폭증하면서 새로 지어진 건물도 대폭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최근 몇 년간 경험했듯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면 금연자가 크게 늘어난다. 그리고 산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하게 늘어나면 큰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해외로 터전을 옮기는 업체들이 줄줄이 나타난다. 저자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은 과세 제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처음에는 반감을 줄이기 위해 임시로 도입된 후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각종 세금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부터 세금이 아니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폭력적인 저항, 혁명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에서 확인된 부작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세금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하며 그래야 더욱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세금 이야기지만 지루하지 않고 세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생각보다 방대하고 깊은 영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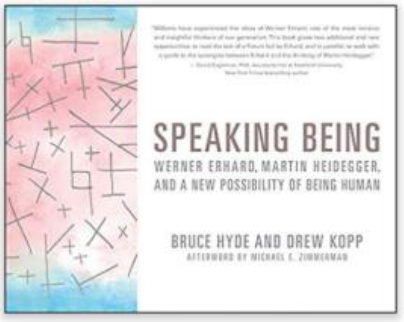
<목차>

1. 낮을 훔쳐간 범인
2. 이례적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례적인 해결책
3. 세금은 왜 필요할까?
4. 과세 제도의 시작
5.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세금
6. 가장 위대한 헌법 문서
7. 흑사병은 유럽의 세금 구조를 어떻게 바꿔 놓았나
8. 지금 우리가 아는 민족국가도 세금에서 나왔다
9. 전쟁, 채무, 인플레이션, 기근, 그리고 소득세
10. 미국 남북전쟁의 진짜 원인
11. 큰 정부의 탄생
12. 2차 세계대전, 미국, 그리고 나치
(이하 생략, 총 20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도미닉 프리스비(Dominic Frisby)는 맨체스터 대학교를 졸업하고 「머니위크」, 「인디펜던트」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저서로는 『Life After the State』와 『Bitcoin』이 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도 활동 중이며 팟캐스트도 진행 중이다.

제목 : SPEAKING BEING
가제 : 말하는 존재
저자 : Bruce Hyde, Drew Kopp
출판사: Wiley
발행일: 2019년 8월 6일
분량 : 576 페이지
장르 : 철학



* **"강력하고, 상상력이 넘치고, 좌절감을 주면서도 재미 있고, 겁도 나고, 깨우침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 놓을 것이다." - 펜실베니아 대학교 윤리학 교수, 『Impromptu Man』의 저자 조너선 D. 모레노**
* **"하이데거와 에어하드에 관한 이해를 돕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해낸 책. 특히 에어하드는 학계의 주목을 지나치게 못 받은 인물인데 이 책이 그 틈을 메우고 동시에 하이데거의 사상을 내가 본 책 중에 가장 멋지게 분석했다" - 콜로라도 대학교 교수, 마이클 E. 짐머만(Michael E. Zimmerman)**

지금도 자기계발서의 인기는 시들지 않는 것만 봐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의미를 찾고 미처 몰랐던 가치를 깨우쳐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는 시대와 사회를 넘어 늘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대형 출판사에서 영업 관리자로 일하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한 사람도 그런 깨달음과 발전을 얻을 만한 기회를 찾아다녔다. 선종(zen), 자기계발서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의 강의 코스 등을 쫓아다니며 거의 10년에 걸쳐 방황하던 그는 1971년 어느 아침, 문득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의미심장한 말들, 뭔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만 같은 이야기 속에 사실 숨겨진 의미 같은 건 하나도 없고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운 생각, 지식, 인식, 믿음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나 자신은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경험'하는 것, 어떤 매개체 없이 원래 존재했던 자신을 직접 경험한 이 순간은 그 해 샌프란시스코의 호텔 회의실에서 처음 시작된 '에스트(est) 훈련'의 발단이 되었다.

이 책은 에스트 훈련의 창시자인 워너 에어하드라는 사상가의 업적과 2019년까지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훈련에 참여하게 만든 힘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에어하드 세미나 트레이닝'의 약자이자 '이것(it is)'을 의미하는 라틴어이기도 한 에스트라는 독특한 명칭의 이 훈련은 에어하드가 자신과 온전하게 마주했던 그 순간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그가 직접 밝힌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각자의 자신을 '찾는' 방법은 언어를 통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통 방식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일 수 있도록 언어와 소통 방식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했고, 에스트의 개념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직접적인 공유를 통해서만 제대로 그 가치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두 저자는 시대가 바뀌고 자기 발견의 의미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면서 '더 포럼'이라는 개선된 형태로 수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에어하드의 이 프로그램에 직접 여러 차례 참여하고 관찰한 것, 그리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한다. 더불어 하이데거의 철학을 에어하드가 추구하고 강조한 수사학적 존재론과 비교 분석하며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사상가의 노력이 일치하는 부분, 그리고 서로의 업적을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밝히는 부분을 보여준다.
언어로 소통할 수 없는 무언가를 소통하는 것, '더 포럼'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소통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고, 독자가 마치 에어하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4일에 걸쳐 진행되는 여러 개의 세션 별로 내용을 구성하여 인간의 존재, 존재하는 것, 인간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의문에 새로운 답을 제시한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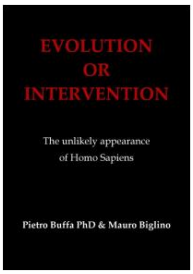
머리말
1일차. 세션 1
  존재에 관한 이야기
  현존재
  두 가지 논지
  존재론적 대화
  세계 속의 존재: 존재하는 것
  기분
  휴식시간: 힌트: 존재론적 구분
1일차 세션 2
  수사학적 환기로서의 철학
  얻고 잃고
   진정성
   휴식시간: 현실 존재: 의미와 '나의 것'
(이하 생략, 총 4일차 세션 3까지 총 16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브루스 하이드(Bruce Hyde)는 2015년 사망할 때까지 세인트 클라우드 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교수로 일했다. 언어와 소통의 존재론적인 측면을 주로 연구했다.

드류 콥(Drew Kopp)은 로완 대학교 부교수로 수사학, 글쓰기 분야에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수사학적 교육학의 이론과 역사 연구에 매진해왔다.

제목 : EVOLUTION or INTERVENTION?
가제 : 인간 가축화
저자 : Pietro Buffa
에이전시: Alexian Limited
장르 : 과학(생물)



*** 다윈의 진화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류 진화의 미스터리를 '인류의 가축화'라는 새로운 이론으로 설명한 책 – 인류의 기원과 정착, 유일무이한 발전의 근원에 관한 흥미로운 이론**

인간은 맨 처음 어떻게 생겨났을까? 인간이 지구상에 함께 머무른 생물들과 이토록 다른, 독보적인 존재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와 과학은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릴 법한 이 두 가지 질문에 상반된 답을 제시해왔다. 인간을 비롯한 생명의 탄생,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인간이 현재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진화를 두고 종교에서는 '신'을, 과학에서는 '자연'을 이 놀라운 변화를 주도한 주체로 본다. 그런데 50여년 전, 당시 드류 대학교의 인류학 교수였던 로저 W. 웨스트콧은 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두 가지 가능성과는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다. 인간의 진화는 '제 3의' 어떤 힘에 의한 '가축화'의 결과라는 주장이었다. 웨스트콧 교수는 '신성한 동물'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통해 지구를 정복했던 미지의 개척자들이 인류 최초의 조상에 일종의 압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자연선택과 같은 선택이 일어나 생물학적, 문화적 진화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과학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한 현재의 과학자들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누군가, 혹은 어떤 존재가 지구에 맨 처음 등장한 인류를 길들였다면? 호모 사이언스라는 생물종은 지금 우리로써는 알아낼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수백 년에 걸쳐 계획하고 실행한 일종의 실험 결과물이라면?

이 책은 다소 섬뜩하면서도 호기심을 가득 불러 일으키는 이 가능성을 웨스트콧 박사의 가설을 토대로 하나하나 따져본다. 과학계에서 추가로 밝혀진 자료들, 그리고 고대 문서에 명시된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는 독특한 과정을 거쳐 두 저자는 지구상에 등장한 모든 영장류를 통틀어 유독 인류에서만 가축화된 생물의 전형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찾아본다. 이 탐구는 과연 인간의 가축화는 자발적인 과정이었을까, 제 3의 힘이 정말로 존재했을까, 라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고대에 작성된 종교 문서에서 인간은 모든 것을 배워서 익혔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 인간의 유전체에 담겨 있는 생물학적인 '암흑물질'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징들을 소개하고 먼 옛날부터 현재 과학적인 성과의 한 부분이 된 인간 배아의 조작 가능성이 어떻게 예측되어 왔는지도 살펴본다. 실제로 인간의 형태학적, 행동학적 특성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들여진 동물의 특징이 무수히 나타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두 저자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가축화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지위를 확보하고 또 유지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재까지 등장한 인류의 진화론과 계통발생설을 두고 수많은 학자들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고, 그 틈을 메우

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두 저자가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와 함께 생물학과 고대 종교 문서의 분석이라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연구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시각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책이다.

<목차>

1장. 생물 진화 과정의 관점에서 본 가축화
- 야생 동물에서 길들여진 동물, 그 이상이 되기까지
- 진화 실험: 가축화가 가져온 생물 종의 변화
-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역할
- 유형성숙: 가축화의 결과
2장. 길들여진 인류의 조상 (1-6절)
3장. 초파리를 통한 추론 (1-5절)
4장. 고대, 그리고 현대의 울타리
- 문명이라는 학교에 입학한 호모 사피엔스
5장. 유전체의 암흑물질
- 한 번 상상해봅시다…
6장. 미래 기술에 관한 고대의 이야기 (1-4절)
7장.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들
부록 - 엘로힘(하느님)

<저자 소개>

피에트로 부파(Pietro Buffa)는 로마 라사피엔짜 대학교에서 연구 중인 분자생물학 박사로 15년 넘게 유전체학과 컴퓨터 기반 생물염기서열분석 분야를 연구했다.

마우로 비글리노(Mauro Biglino)는 22년 넘게 고대 히브리어로 작성된 성경 관련 도서 17권을 번역한 번역가다. 교회의 성경 해석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주제로 23권의 책을 썼다.

제목 : 52 RANDOM WEEKEND PROJECTS

가제 : 아이언맨이 되는 52가지 방법

저자 : Grant Thompson, Ted Slampyak

출판사: St. Martin's Griffin

발행일: 2020년 3월 1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취미

*** 약 천 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투버가 소개하는 52가지 만들기 프로젝트 – 멋진 흑백 일러스트와 함께 제작 단계부터 활용법, 재미 있는 정보까지 두루 소개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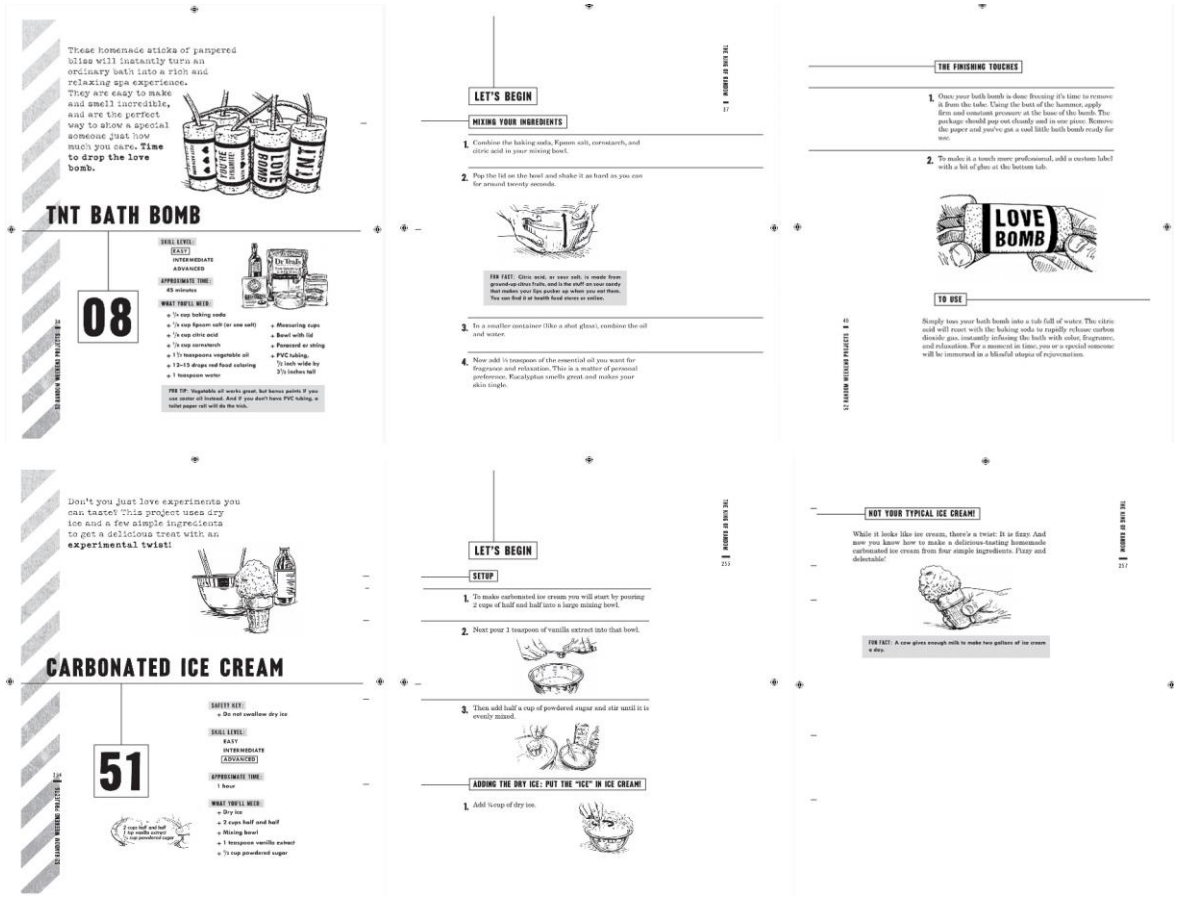
알루미늄 호일 한 장과 작은 성냥갑 하나만 있으면 로켓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캠핑을 와서 모닥불을 피워야 하는데 라이터도 성냥도 깜박 잊었다면, 샌드위치를 담아온 종이봉투와 주변에서 주운 나뭇가지, 나무껍질로 강력한 부싯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10미터까지 날아가는 초소형 성냥개비 석궁은? 매주 5가지나 되는 새로운 만들기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업로드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기 유투버가 이제 막 발명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을 위해 엉뚱하고 재미 있는 물건들 52가지를 모아 책으로 엮었다. '대체 그런 물건은 왜 만드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재료로 만드는 저자의 발명품은 위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생존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지루한 일상에 큰 재미를 안겨주는 특별한 장난감이 될 수도 있다. 쥐덫으로 만드는 권총, 병 뚜껑으로 만드는 파티용 호루라기,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닌자 볼, 테이블보로 만드는 낙하산 등 엉뚱하지만 놀라운 창의력이 담겨 있는 물건들은 저자가 운영 중인 유투브 채널에서 소개된 후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프로젝트를 엄선한 것이다. 영상과 달리 섬세한 선이 살아 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까다로울 수 있는 제작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갈 수 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현상도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라는 질문을 늘 떠올리며 살아온 저자는 10여 년 전, 극심한 경기 침체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한다. 전기, 바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같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갑자기 못 쓰게 되거나 구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건이 작동하는 원리와 신기한 현상을 향한 호기심을 그 어느 때보다 십분 발휘해 꼬박 1년 동안 실험과 발명에 매달린 결과, 저자는 용접기, 모터를 만들어내는데 이어 소금물과 유리병으로 고전압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까지 터득했다. 별의별 물건을 뜬금없이 만들어내는 사람, 엉뚱한 발명가로 불리면서 사람들이 의외로 자신의 만들기 실력과 제작 과정에 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아챈 저자는 유투브 채널을 개설했고,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처럼 유명한 발명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이루었다. 물론 슈퍼히어로처럼 세상을 지배하거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만한 위대한 물건들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냥 버려지는 물건들, 집안 한구석에 처박혀 먼지만 뒤집어쓰고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아주 유용하고 경우에 따라 필수품이 될 수도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일은 만드는 사람, 보는 사람에게 모두 뜻밖의 재미를 안겨준다. 완성된 미니 로켓을 날려볼 때, 가게 하나 없는 산 속에서 다들 허둥지둥 불 피울 법을 찾아 헤맬 때 강력한 부싯돌로 금방 불을 피울 때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넘어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익히고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끝까지 해내는 끈기의 가치를 보여주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부. 초급 프로젝트
 1. 빨래집게 총
 2. 성냥갑 로켓
 3. 쌍절곤
2부. 중급 프로젝트
 27. 팔에 장착하는 꼬챙이 발사장치
 28. 암살자를 위한 소형 석궁
 29. 레이저 기능이 부가된 블로건
 (이하 생략, 41장까지)
3부. 상급 프로젝트 (42-5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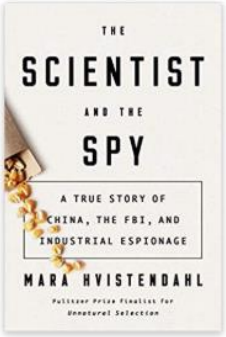


<저자 소개>

그랜트 톰슨(Grant Thompson)은 1,000만 명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투버다. 매월 평균 조회수 4,000만 회가 넘는 유투브 채널 'THE KING OF RANDOM'을 통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각종 발명품을 직접 만드는 과정과 팁을 제공해왔다.

테드 슬램야크(Ted Slampyak)는 만화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100 Deadly Skills』의 그림 작업에 참여했다.

제목 : THE SCIENTIST AND THE SPY
가제 : 스파이가 된 과학자들
저자 : Mara Hvistendahl
출판사: Riverhead Books
발행일: 2020년 2월 4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역사



*** 미국 기업의 GMO 기술을 훔치려다 적발된 중국 업체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산업 스파이의 실태 – 유구한 역사, 그리고 미국 정부의 대처 노력에 관한 냉정한 평가**

2011년 9월의 어느 날, 아이오와 주에서 평소대로 순찰을 돌던 보안관은 멀끔하게 잘 차려 입은 아시아 남성 세 명을 옥수수밭에서 발견한다. 식품업체 몬산토 사가 특허를 취득한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해 빌린 땅으로, 몬산토와 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부가 도맡아서 농사를 짓는 곳이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가는 행인으로 보고 그냥 넘길 수도 있었던 이 우연한 만남은 어딘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보안관의 기지로 대형 사건이 되었다. 테러범이거나 산업스파이로 의심된다는 판단은 FBI까지 보고가 되었고 2년여에 걸쳐 이들이 타고 다니는 렌터카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동시에 처음 등장한 아이오와 옥수수 재배지 상공에 비행기까지 띄워 조사를 벌인 끝에, 세 남성 중 한 명은 사업 기밀을 훔친 사실이 드러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중국 최대 종자 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DBN 그룹의 요청으로 산업스파이 활동을 벌인 이 남성은 미국 농업분야의 두 주축인 듀퐁 피오니어 사와 몬산토 사의 새로운 기술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퓰리처 상 결승에 오른 논픽션 작가인 저자는 중국에서 8년간 거주했던 경험과 유창한 중국어 솜씨를 발휘하여 이 사건의 전말을 샅샅이 파헤친다.

FBI 베테랑 특수요원이 로버트 모라는 이름으로 플로리다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남성이 학업을 마친 후 전혀 연관성이 없는 중국 업체에 취직을 한 것에 주목하고 산업스파이 활동을 벌이게 된 과정을 따라가면서, 저자는 이 사건이 날로 심각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지적 재산권 갈등을 조명한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 현재 미국 업체들은 “사업 기밀이 몰래 빼돌려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임을 아는 업체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업체” 단 두 종류로 나뉜다고 언급했을 만큼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매년 산업스파이 피해로 미국 업체들이 입는 손해 규모만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저자는 갈수록 대범하고 확장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불법적인 시도는 트럼프 정부 이후 더욱 악화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술 ‘독점’을 목표로 삼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분석한다. 또한 쉴 새 없이 빠져나가는 귀중한 기술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마련한 조치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효력을 나타냈는지 평가한다. 산업스파이의 역사는 산업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역, 문화, 업종을 가릴 것 없이 어디에나, 어느 시대나 소위 '잘 나가는' 업체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경쟁업체의 도를 넘는 시도는 늘 있었다. 하지만 기술과 혁신의 가치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했고 주로 '피해자'의 쪽에 몰려 있는 서구 업체들은 경쟁력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 저자는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이 오래 전부터 고심하고 시도해온 반스파이 전략을 소개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빛나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손익 등 다양한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전체적인 기술 혁신에 끼치는 영향과 이 복합적인 흐름을 막으려는 노력이 어디까지 유효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더불어 미국이 지적 재산권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마련한 보호 전략에 짙게 깔려 있는 인종차별주의의 그림자를 비판하고, 공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미국 국가안보국 전 국장이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범죄를 두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이동"을 일으켰다고 한 말에도 담겨 있는 양국간의 무시할 수 없는 갈등의 실태를 보여주고 지적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36장 (소제목 없음)
맺음말

<저자 소개>

마라 흐비스텐달(Mara Hvistendahl)은 더 애틀란틱, 뉴욕타임스 등에 글을 기고해온 저술가다. 저서로는 『Unnatural Selection』과 퓰리쳐 상 논픽션 부문, LA 타임스 도서상 결승에 오른 『Consequences of a World Full of Men』 등이 있다.